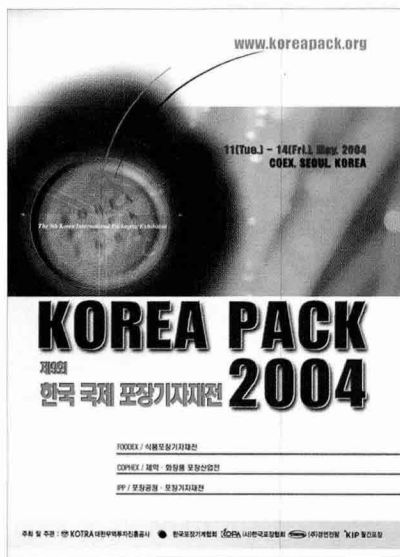


포장전시회 '코리아팩'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



코리아팩과 서울팩 통합 개최

올해로 9회 째를 맞은 '코리아팩 (KOREA PACK)' 이 '서울팩 (SEOUL PACK)' 과 통합되면서 국내 포장전시회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5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대서양관과 컨벤션홀을 모두 사용해 개최되는 코리아팩은 서울팩과 통합되면서 기존의 공동주최자였던 경연전람, 월간 포장, 한국포장기계협회와 서울팩 공동주최자였던 한국포장협회, 코트라가 참여하게 돼 5개

업체 및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코리아팩과 서울팩으로 양분돼 전시 참여업체는 물론 참관자들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포장관련 전시가 하나로 통합돼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코리아팩은 포장재 생산 및 포장공정에서 나타나는 고불량률, 노동집약성 등을 지양하고 설비자동화 및 우수 소재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포장의 경제성, 환경친화성, 미래성을 꾀하며, 포장산업 정보 및 기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1992년 만들어진 전시회이다.

'미래, 환경 그리고 좋은 포장'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포장전시회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코리아팩은 각종 포장 기계 및 재료, 인쇄기자재, 포장가공기계, 시험검사장비, 물류장비, 식품 제약 화장품관련 설비 등이 총망라되어 25개국 350개사가 참가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참가 업체 및 전시 부스가 더욱 늘어난 30개국 370개사 820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코리아팩 2004 전시회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사)한국포장협회가 공동 주최했던 서울팩 전시회와 한국포장기계협회, (주)경연전람, 월간 포장이 공동 주최했던 코리아팩 전시회를 단일화하여 통합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포장기계가 주로 출품되었던 지난 행사와는 다르게 포장재료, 연 포장관련 제품들이 대거 출품된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이번 코리아팩에 출품되는 품목 중 인쇄관련 품목은 라벨러, 라벨분리기, 레이저프린터, 박스마킹기, 스템핑, 열전사프린터, 잉크젯프린터, 정제프린터, 패드인쇄기, 플렉소인쇄기, 합지기 등 인쇄기자재와 오버 랩핑기 및 랩핑기, 결속기, 물류시스템 및 장비 등 관련산업 기자재 등이다.

차세대 유망전시회로 선정

코리아팩은 차세대 유망전시회 선정, 기술표준원 NT(신기술) 및 EM(우수 품질) 인증 사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혜택을 거듭할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이번 코리아팩



올해로 9회 째를 맞은 '코리아팩'이 '서울팩'과 통합되면서 국내 포장전시회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5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대서양관과 컨벤션홀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개막식 모습.

· 1992년 제1회 국제포장재생산 및 포장공정기술전(IPP) 개최, (주)경연전람 주최

· 1994년 (주)경연전람·월간 포장산업 공동주최

· 1996년 국제포장재 및 포장기술전으로 명칭 변경

· 1998년 국제포장공정·포장기자재전 명칭 변경

· 2000년 PACKAGING WEEK로 명칭 변경, 격년에서 매년 개최, (주)경연전람·월간 포장·한국포장기계협회 공동주최

· 2001년 제6회 PACKAGING WEEK 개최

· 2002년 KOREA PACK으로 명칭 변경

· 2003년 제8회 KOREA PACK 개최

· 2004년 제9회 KOREA PACK 개최(예정), (주)경연전람·월간 포장·한국포장기계협회·한국포장협회·코트라 공동주최

2004 전시회를 차세대 유망전시회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팩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외바이어들의 대거 초청이 가능하게 돼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동주최사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세계 70여 개국 100여 개 해외공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100여 개 해외 사 모집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사 주최측은 코리아팩 전시회 참가를 통해, 참가 기업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포장기계협회는 지난해 세계에서 14번째로 세계포장기계협회총연맹(C.O.P.A.M.A)에 가입했다. 미국, 일본, 이태리, 독일 등 14개국의 포장기계협회가 회원으로 구성된 이번 연맹가입을 통해, 국내 포장기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포장기계협회는 향후, 이들 C.O.P.A.M.A. 회원협회 총회를 한국에서 코리아팩 전시회 기간 중 개최하

여 세계 유력 포장기계인들과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T 및 EM 인증제품의 판로개척과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NT 및 EM 인증을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코리아팩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이미 포장 관련 관계사 11개 사가 참가 신청을 마쳤으며, 4월말까지 해당 인증사의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코리아팩 2005 일산전시장서 식품전시회와 함께 개최

코리아팩은 포장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포장과 관계가 깊은 식품전시회와 연계해 참관인들이 한 장소에서 관련 전시회를 모두 볼 수 있도록 2005년부터는 서울 국제 식품전시회와 함께 개최된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식품공업협회가 주최하는 서울 국제 식품전시회(SEOUL FOOD)와 포장기자재전인 코리아팩을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매년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포장산업과 식품산업 종사자들간의 원 스톱마켓 플레이스(One-Stop Market-

place)를 제공하게 된다.

코리아팩 2005 전시회는 식품전시회와의 연계로 전시장도 현재의 서울 코엑스가 아닌 경기도 일산에 설립 중인 KINTES에서 개최된다. 현재의 코엑스는 지하 쇼핑몰과 시내에 위치한 관계로 인해 중량물 전시가 불가능했지만 KINTES는 이를 해소할 수 있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수의 업체들이 참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전시회가 되고 있다.

코리아팩 전시회가 서울국제식품전과 동시 개최에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동시개최 시 총 전시규모는 약 40개국 600여 개사 2000부스를 상회하는 행사규모로 세계 3대 포장전시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의 도쿄팩 전시회에 버금가는 규모가 된다.

주최측은 포장전시회의 대형화, 국제화를 통하여 코리아팩 전시회를 아시아 대표 브랜드 전시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즈니스 위주의 전문 상담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호부장〉